

조선 건국의 의의는 단순히 국왕이 왕씨에서 이씨로 바뀌었다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면에서 많은 변화와 역사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데에 있다.

이는 조선을 건국한 사람들이 새 왕조 건설 초기부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고, 또 그것을 성공적으로 이루려고 노력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조선 왕조는 주로 과거 합격자를 관리로 뽑아 쓴 관료제 사회로서, 정치는 양반 관리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양반들은 국왕을 견제하고 그들의 정치 권력을 확대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일반 백성들의 생활 향상에도 힘을 기울였다.

조선을 세운 사대부들은 성리학을 중시하였다. 따라서 조선은 건국 초기부터 성리학의 이념과 이론에 따라 덕치주의를 내세워 유교적 이상 정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일반 백성들의 생활에도 유교 예속을 많이 권장하였다.

조선 왕조는 건국 초기 약 100 년간은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고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였다. 그 결과,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수준 높은 민족 문화를 꽃피울 수 있었다.